

‘협력적구술사’를 통해 혐오와 대립에 균열 만들기¹⁾

조일동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류학전공 부교수)

들어가며

2025년 4월 17일 저녁,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양꼬치 거리’엔 낯선 행렬이 나타났다. 등에 대학교와 학과 이름을 새긴 소위 ‘과잠’을 입은 청년 무리가 “짱개, 북괴, 빨갱이들 대한민국에서 빨리 꺼져라”라는 구호에 음률을 붙여 돌림노래처럼 부르며 장사 중인 중국계 상인들에게 혐오의 욕설을 마구 쏟아냈다. “식당을 하고 있을 뿐인 우리에게 왜 욕을 하나”며 항의하던 상인과 시위 참여자 사이에 폭행이 벌어져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²⁾

양꼬치 거리에서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자신과 아무 관계 없어 보이는 중국계 주민들에게 혐오의 행동과 언어를 서슴없이 내뿜은 한국 대학생들의 모습을 보며 가장 먼저 떠오른 장면은, 몇 년 전 오사카의 한인타운 이쿠노 입구에서 본 일본 우익의 집회였다. 일본 우익 단체들이 도쿄와 오사카에 자리한 한인타운 혹은 교토의 우토로 마을 같은 조선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을 찾아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라 부르는 혐오 연설을 하고, 무리 지어 돌아다니며 상인과 지역민을 상대로 위협적인 행위를 서슴없이 하던 모습 말이다.

2025년 서울 한복판에서 냉전을 맥락으로 삼은 혐오의 언어가 아무렇지 않게 등장한 이 모습을, 갑자기 나타난 극우 대학생의 이상한 행동이라고 단순화시킬 수 있을까? 어쩌면 이러한 현상은 한국으로 이민 혹은 노동 이주를 선택하는 외국 국적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일상에서 이들과 관계를 형성하거나 소통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피상적인 ‘타자’로만 여기면서 만들어진 문제는 아닐까?

양꼬치 거리에 몰려간 청년들이 욕설을 내뿜은 이주민 중 상당수는 한국계 중국인, 즉 조선족이다. 중국 조선족을 포함해 한국에서 다문화 이주민으로 일컬어지는 인구 다수는 중앙아시아 고려인과 같은 소위 ‘코리안 디아스포라’ 집단이다. 이들은 민족으로(ethnic) 보면 한민족이되, 국적(nationality)으로 보면 외국인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면 2025년 수면 위로 드러난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한국 내 갈등은 식민지와 한국전쟁-냉전을 거치며 한반도 남북과 아시아(와 세계) 각국으로 흩어졌던 한민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 할 수 있다.

닮은 얼굴을 한, 그러나 서로 다른 역사를 살아온 사람들이 만나면서 벌어진 갈등이 혐오로 나아간 거다. 혐오를 조장하는 세력에 대한 사회적 제재가 필요한 시기다. 그러나 제재가 문제 해결책은 아닐 것이다. 완전히 다르다고 여기는 존재와 존재 사이에 ‘이해’를 구하는 사회적 시도와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이해란, 오해·외면·혐오의 대상인 타자와 내가 관계를 맺기 위한 시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생겨난다.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는 당연히 표현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해의 시도는 언어적 활동을 수반하게 마련이다.³⁾ 서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가 다르고 또 닮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과정에서 이해는 시작된다. 이 글은 다양한 한민족 구성원 사이에 이해의 가능성을 탐색하며 8년여 진행되었던 한 프로젝트에서 얻었던 필자의 경험을 소개하며 이해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도다.

1) 이 글은 다음 연구 결과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많은 내용을 재구성했다. 조일동(2020), “다름을 인정하기, 다름을 이해하기, 같음을 뛰어넘기: 협력생애사과정에서 드러난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국민과 민족 경계 연행에 대한 분석”, 『현대사회와 다문화』 10(1): 1-29.

2) “건대 양꼬치 거리 한복판서 혐중 시위한 윤석열 지지 극우 청년들”, 한겨레, 2025년 4월 19일.

3) 윤은주(2019), “혐오 표현에 맞서는 방법으로서 이해”, 『인간·환경·미래』 22: 229-250.

근현대 한반도를 넘나든 사람들 사이의 대화

지난 10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반도와 그 주변은 제국주의와 식민지, 한국전쟁, 냉전, 압축적 산업화가 온통 휩쓸었다. 그 사이 국경 안팎에서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 선택으로 수많은 사람이 이주했다. 이주는 단순히 사는 동네를 바꾸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지역, 문화, 사회, 역사, 정치, 이데올로기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도전이다. 이주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이, 사람들의 가치관과 삶의 형태도 변화한다. 출발한 문화도 도착한 지역의 문화에도 속하지 않는 어정쩡한 정체성을 가진 스스로에 대한 고민에 빠지기도 한다. 한민족 구성원 다수가 지난 3~4세대 사이에 겪은 일이다.

이를테면 일본 국민으로 일본 땅에 살고 있다가 2차 세계대전 종전과 함께 무국적 외국인이 되었던 '재일동포', 소련 국민도 일본 국민도 아닌 애매한 존재가 된 '사할린동포'와 중앙아시아 '고려인', 1949년 갑자기 중국 국민이 돼버린 중국 '조선족', 이념의 다름과 연좌제에 묶여 한반도 남쪽에서 나고 자랐음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가져야 할 권리를 박탈당했던 '민간인 학살 피해자'와 그 유가족, 더 나은 삶을 위해 미국, 독일, 남미 등으로 떠나 한국인과 해당국 사이에 '깁' 존재로 살아온 1960년대 이후 이민을 떠난 사람들, 엄연한 한국 국적자임에도 일상적으로 한국인에게 배제되는 경험을 토로하는 '탈북자' 등은 모두 사회, 문화, 역사적 차원에서 누구보다 자신의 정체성을 질문하고 고민하며 살아온 존재다.

필자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에서 진행되었던 실험적인 연구 프로젝트들에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했다. 연구 책임자였던 정병호 교수가 중심이 된 이 프로젝트들은 시간이 지나며 제목이 조금씩 변했지만, 큰 틀에서 '한민족다문화 삶의 역사 이야기'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처음은 대학 연구기관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인문학적 실험이었다. 당시 '치유의 인문학'이라는 다소 거창한 제목을 달았던 이 프로젝트는 대학이 시민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강좌라는 형식을 비틀었다. 평범한 시민이 대학 구성원에게 자신이 삶에서 얻은 가르침을 나눠주는, 나아가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함께 참여한 시민들 사이에 소통과 이해를 구하는 실천 인문학 기획이었다.

마침 글로벌다문화연구원이 자리했던 경기도 안산시는 한국에서 가장 다양한 배경을 가진 다문화 이주민이 살고 있는 도시였다. 안산이라는 도시 자체도 1970년대 중반 간척지 위에 세워진 계획공업도시였다. 다시 말해 시민 모두가 이주민인 도시였다. 조금 일찍 혹은 늦게 안산 공단을 찾은 각기 다른 지역, 문화, 역사, 언어, 종교적 배경을 가진 이주 노동자 집단 사이에 갈등과 편견이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던 시점이었다. 안산에는 중국과 중앙아시아에서 온 한국계 노동자는 물론 러시아 사할린에서 영주귀국을 선택한 고려인 노인 집단 거주지도, 탈북자 공동체도 있었다.

냉전의 한복판에서 서로 다른 이념을 내세운 국민국가의 구성원으로 살아오던 이들이 여러 이유로 지난 몇 년 사이 한반도 남쪽 안산이란 도시의 시민으로 함께 살아가게 된 것이다. 이들이 각자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를 대학이 제공한다는 기획이었다. 연구팀은 안산의 다양한 구성원뿐 아니라 재일, 재미를 포함한 재외동포, '대한민국 국민' 안에서도 서로 다른 삶의 궤적을 경험했던 탈북민과 실향민, 파독 광부와 간호사,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가족과 장기수 등으로 참가자 사이의 '다름'의 맥락을 확장시켰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맥락을 가진 사람들을 대학 캠퍼스로 초대해 서로의 삶을 들려주는 자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시작된 ‘한민족다문화 삶의 역사 이야기’의 목적은 전혀 거창하지 않았다. 한민족의 역사를 한반도 밖으로까지 확장하고 다시 쓰는 시도 같은 원대한 포부도 없었다. 단지 다양한 역사적 사건을 관통하며 삶을 ‘살아낸’ 한국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삶 하나하나가 가진 이야기가 만나는 모습에만 주목하고자 했다. 체제나 이념, 국적과 같은 표지를 떼고 온전한 개인으로 각자가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를 통해 대화하는 자리를 기획했다. 다름의 경험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1945년 이전에 출생한 노인을 대상으로 프로젝트는 구성되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남녀 노인 6명 가량이 대학 캠퍼스로 초대되어 함께 이야기하고, 먹고, 자며 1박 2일의 시간을 보내는 형태로 프로그램은 디자인되었다. 각자 30~40분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자신의 지난 삶을 각자의 방식으로 갈무리해 들려주고, 참가자들이 서로 묻고 답하며 압축적 삶 이야기에서 빈 부분을 함께 채웠다. 이렇게 삶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다른 국경과 문화를 넘나들며 만나야 했던 각기 다른 체제나 이념이 대립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70년이 넘는 시간을 살아온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들’이 더해지고 겹치면서 대립은 점차 일그러지고 서로를 온전한 개인 대 개인으로 마주하는 순간이 나타났다. 여러 사람이 묻고 답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구술생애사라는 의미에서 연구팀은 이 실험을 ‘협력적구술생애사(Collaborative Oral Life History)’라 이름 지었다.

이 글은 8년 동안 진행했던 ‘협력적구술생애사’ 과정에서 다름이 드러나는 순간은 어떤 맥락이었고, 그 다름이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며, 참가자들은 이러한 대립을 어떻게 뛰어넘었는지, 혹은 적어도 다름을 어떻게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마주하게 되었는지 살펴본다. 필자는 이 과정에서 단일한 공동체로 상상되는 ‘한민족’ 서사가 가리고 있는 민족 내부의 ‘다름’이 드러나는 맥락에 주목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한국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같음’에 대한 강박 없이 다름‘들’이 공존할 가능성을 모색하고 성찰하게 되었다.

비일상적 시공간에서 서로 묻고 답하며

문화인류학자 빅터 터너(Victor Turner)는 다양한 문화에서 벌어진 의례 사례를 분석하면서, 거의 모든 의례가 일상에서 진행되던 정례적이고 규범적인 사회관계를 무너뜨리는 데서 시작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터너에 따르면, 의례 속에서는 일상의 규칙이 무너지고 비일상적인 새로운 위기(crisis)가 점증하다가, 일상과 비일상이 서로 합쳐지며 새로운 의미로 틀이 지워지는 교정(redressive action)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 이 교정 단계는 의례의 가장 한복판에서 벌어지게 되며, 참가자는 이 순간 과거의 자신도 미래의 자신도 아닌, 즉 ‘이도 저도 아닌’ 전이적 존재가 된다.⁴⁾

전이 단계에 이르러 의례 참가자는 기존의 가치 체계나 규칙을 뛰어넘어 모두 공통된 감각을 나누는 특별한 시간과 경험을 갖게 된다.

대학 캠퍼스라는 낯선 공간에 초대되어 처음 만난 사람들과 둘러앉아, 자기소개를 할 때만 해도 참가자들 사이에는 긴장감이 팽팽했다. 그러나 한 사람씩 돌아가며 같은 크기의 시간만큼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는 의례적인 과정이 반복되는 사이, 사람들의 표정과 몸짓이 변하기 시작했다.

4) Victor Turner(1975), *Drama, Fields and Metaphors: Symbolic Action in Human Society*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빅터 터너(2018), 『인간 사회와 상징행위: 사회적 드라마-구조-커뮤니타스』, 강대훈 옮김 (서울: 황소걸음).

한 사람, 두 사람, 차례로 삶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참가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발언 시간만큼은 누구의 제재나 눈치 없이 자신의 삶을 원하는 모양으로 들려줄 수 있다는 규칙의 공고함을 확인했다. 이러한 규칙 확인은 자기 이야기 들려주기에 자신감을 주었다. 대화 모임에 참여하는 이들 동안 만큼은 ‘나’의 이야기를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신뢰가 생기자, 참가자들은 자신이 가진 생각이나 내밀한 경험을 점점 더 구체적으로 들려주기 시작했다.

삶 이야기를 들려주고, 경청하고, 질문하며 생애사를 채워가는 형식을 따른다는 사실을 제외하면 참가자들은 전혀 다른 삶의 궤적과 배경, 내러티브를 가진 타인과 비일상적인 공간에서 이틀이라는 시간을 전면적으로 함께 지내야 했다. 참가자들은 자신과 타인의 삶 이야기에 담긴 내러티브는 물론 목소리, 억양, 표정, 손짓, 공간의 냄새부터 햇살까지 수많은 것을 함께 느끼고 나누게 되었다. 이 두툼하고 짙은(thick) 삶 이야기를 나눈 이들이 지나면, 참가자들은 모두 다시 각자의 생활공간으로 완전히 되돌아가게 될 터였다.

협력적구술사 프로그램은 자신이 사는 시간과 공간에서 벗어나(분리), 일상을 규준하고 있던 사회적 규칙이나 위계에서 벗어나, 누구에게나 동일한 발언 기회와 시간을 이들 동안 경험하고(전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재통합)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민족다문화 삶의 역사 이야기’는 의례적 구조를 가진 셈이다. 터너의 동료 연구자였던 리처드 셰크너(Richard Schechner)는 의례란 일상의 반복적인 삶에서 벗어나 가정법, 교체 가능성, 즉흥성 등이 작동하는 순간이며, 여기서 말하는 의례는 종교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⁵⁾ 시작과 끝이 정해진 특별한 비일상 속에서 경계 넘기를 경험하는 협력적구술생애사는 의례적 장이라 봐도 무방하다.

냉전의 대립을 넘어선 삶의 대화

정해진 시간만큼은 상대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개입할 수 없고, 경청해야만 한다는 규칙의 중요성은 앞서도 지적했다. 이는 반공의 신념으로 살아온 참가자가 북한에서의 행복했던 기억을 들려주는 탈북자 얘기에, 중국 조선족 노인의 몸에 밴 사회주의적 태도에 대해서도 꿈쩍없이 들어줘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의미였다. 이를테면 마정호⁶⁾는 엄혹한 냉전 역사를 경험한 남한 사회에서 상대방보다 자신을 우위에 놓을 수 있는 특별한 행동양식 하나를 체화하고 있었다. 자신이 우익 반공 투사임을 강조하며 누군가를 빨갱이라고 지목하고 비판하는 순간, 대화의 화제는 모두 사라지고 자신의 말과 행동만이 주목받는다는 권위의 경험이 그것이었다.

협력적구술생애사 모임이라는 의례적 시공간에 들어온 순간, 마정호의 반공 투사 경험은 북한에 살면서 밝은 미래를 꿈꾸던 박강명의 젊은 시절 기억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놓일 수 없었다. 그렇다고 마정호의 삶과 가치가 다른 모임 참가자들에게 부정되지도 않았다. 마정호의 경험은 다른 참가자들이 겪었던 생애의 과정과 마찬가지로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평등한 경험‘들’ 중 하나일 뿐이었다. 한국전쟁과 냉전은 한반도 남쪽에서 ‘빨갱이’라는 단어를 뽐족하고 공격적인 장치로 만들었다. 하지만 협력적구술생애사 모임 안에서 ‘빨갱이’ 이야기는 ‘미제’에 맞선 투쟁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삶의 가치와 실천 중 하나가 되었다. ‘빨갱이’도, ‘미제’ 투쟁도 뭉툭하게 만들어 버리는 평등한 시간과 다층적 차원의 질문과 대화가 이들 동안 이어졌다.

5) Richard Schechner(1985), *Between Theater and Anthropology*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리처드 셰크너(2004), 『민족연극학』, 김익두 옮김 (서울: 한국문화사).

6) 이 글에서 언급되는 사람들의 이름은 모두 가명이다.

동아시아가 경험했던 한국전쟁은 전혀 다른 여러 시점(남한, 북한, 중국, 일본)에서 바라볼 수 있는 ‘사건’이자 ‘상처’였음이 여러 사람의 삶 이야기가 더해지면서 선명해졌다. 이들 동안은 한국전쟁이 남측의 입장에서 규정될 수도, 북측의 입장에서 이해될 수도, 중국의 입장이거나 일본에서 본 시각으로 단정 지을 수 없었다. 군인만 한국전쟁을 겪은 것도 아니었다.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만 겪은 것도 아니었다. 중국에서, 일본에서, 나아가 사할린, 중앙아시아, 미국, 독일, 아르헨티나에서 이주민으로 살아온 참가자들이 국경을 넘나드는 삶의 행로를 들려주던 이야기 속 어느 지점엔가 한국전쟁과 냉전의 대립을 경험했고, 하나씩은 상처로 남아 있었다.

그래서 협력적구술생애사 모임 참가자들은 한국전쟁을 재정의하기 시작했다. 이념이 지워지자, 한국전쟁은 슬프고 깊은 상처와 아픈 기억으로 새롭게 의미화되었다. 반공 투사, 북한 군인 출신 탈북자, 중국 출신 조선족, 자이니치 2세도 모두 이념 대립의 희생자였다. 그리고 모두 어떤 방식으로건 이 깊고 짙은 아픔을 딛고 삶을 살아낸 부듯한 생활인으로 각자의 위치와 의미가 조정되었다. 터너의 개념을 다시 가져오면, 의례 과정 중 ‘전이’ 상태에서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는 ‘교정’이 일어난 것이라 하겠다.

다른 이념을 품고 살아온 서로를 ‘틀린’ 존재로 규정하면서 날을 세웠던 대립의 대화는 삶 이야기가 더해질수록 다른 방식으로 풀려나갔다. 한국전쟁이 남긴 상처를 씻는 벗이었던 독한 술 이야기가 어느새 한국 술은 북한보다 너무 약하다, 고난의 행군 시대에 얼마나 힘들게 술을 마셨다, 중국은 안주가 어떻다, 술안주는 개고기가 최고다라는 식으로 개인과 개인, 습관과 개성이 드러나는 삶 이야기로 조정되어 갔다. 몸에 배어 있는 행동거지나 맛에 대한 취향은 이념으로 단일화될 수 없는 온전히 개별화되어 있다. 이야기는 이렇게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나아가 다름 속 ‘달음’을 찾아나갔다.

협력적구술생애사 이전까지 이들은 이념과 체제가 각자의 삶에서 너무도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 여겼다. 심지어 일부는 이념만 쫓으며 일생을 살아왔다고 스스로 확인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60여 년 만에 눈앞에 선 대립하는 ‘적국’ 출신 원수와 믿어온 존재는 자신만큼이나 평범한 노인이었고, 심지어 삶 이야기 중 술 얘기가 나올 때마다 손으로 술잔을 들이키는 시늉을 똑 닮게 하는 ‘개인’이라는 사실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다. 노인들 사이는 일시적이지만 공통점을 많은 관계로 재구성되었다. 반공 투사가 아닌 개인으로 인민군 출신 또래와 마주했다. 이념의 잣대를 지우고 만나 평등한 시공간을 나누는 대화모임을 진행하면서, 참가자의 성격과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다.

대화모임 참가자가 들려준 삶 이야기와 그로부터 기인한 대화 속에서, 도저히 틈이 없어 보이던 이념 사이의 날카로운 대립이 취향으로 두루뭉술하게 마주하게 되었다. 첫 만남 후 가진 점심 식사에서 멀찌감치 앉았던 이들은 가벼운 술이 더해진 저녁 식사에서는 마주 앉아 건배사를 제안했고, 다음 날 헤어질 때는 한참 동안 손을 맞잡았다. 물론 이들의 경험이 참가자의 이념이나 사고방식을 통째로 뒤바꿨을 리 없다. 다만 균열의 가능성을 발견했음은 지적하고 싶다.

중심과 변방은 상대적

코리안 디아스포라들은 한반도에만 정주했던 조상보다 문화적, 역사적, 언어적으로 복잡한 존재다. 이들은 자신들이 거처온 혼종적 문화와 사회, 정치, 역사 경험을 소개하면서 스스로 한민족이라 밝힌다. 자신이 한민족이라는 주장은 조부모부터 본인 세대까지 겪어온 삶의 궤적을 긍정하는 태도이자, 현재를 역동적으로 재구성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하지만 세대를 건너오며 이어오던 노력은 자신의 정체성이 시작되었다고 믿어온 한반도 남쪽에 도착하는 순간, 여지없이 무너졌다. 여기에는 한국과 한국 국민이 '우리' '한민족'의 중앙, 중심, 핵심, 본령이며 해외 거주/귀환이주 한인은 변방, 부수, 소수, 나머지라는 식의 사고방식이 깔려 있다.

이러한 사고에 기반한 한국의 역사 인식 속에서 귀환 이주민은 자신들이 이룩한 성과나 업적에 상관없이 언제나 변방에 놓이게 된다. 역사학자 테사 모리스-스즈키(Tessa Morris-Suzuki)는 변방이란 맥락적으로 창조되는 영역에 가깝다고 지적한다.⁷⁾

해외에서 살았던 한민족 구성원을 변방에 위치시켜 인식하는 사고는 우리에게 익숙한 차별의 시선과 닮아 있다. 일제강점기 일본이 일본 열도와 그곳에서 태어난 일본인을 중심에, 조선과 조선인을 외부인으로 인식했던 체계를 살짝 변형한 것에 불과하다. 단지 중심이 한반도와 한국민으로 대체되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에게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언제나 변방, 부수, 약자 혹은 소수자이기에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시선을 인식하고 있는 귀환 이주자들은 '한민족다문화 삶의 역사 이야기' 모임에 참석해도 스스로를 그와 같은 위치에 놓는 식으로 구술을 시작했다. 하지만 참가자가 조선족, 고려인, 재일동포, 한반도 정주민처럼 집단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온전한 개인으로, (탈)식민과 냉전의 역사를 훑어내며 살아온 삶의 주인공으로 이해하게 되면서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변하기 시작했다.

출신과 배경을 떠나 개인과 개인으로 마주하게 되면서 결국 서로가 서로의 삶의 자리에서 바라보면 모두가 변방의 삶을 살았고, 모두가 중심에서 삶을 영위한 존재였음을 배우게 되었다. 다르게 말하면 모두가 각자의 맥락에서 삶의 주체로 살아왔음을 깨닫게 되었다. 덕분에 모두가 자연스럽게 자신이 성장한 삶의 터전과 생애 과정에 대해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듣고, 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 협력적구술생애사를 통해 한민족 역사를 한반도 남쪽의 역사, 이념, 언어, 문화, 정치로 치환했던 사고방식에 균열을 가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한 사람의 삶에만 집중하는 기존 구술생애사 채록 방식으로는 불가능했을 협력적구술생애사가 불러온 새로움이었다. 나아가 재외 한인을 조선족, 고려인, 재일동포 등의 집단으로 호명한 후, 각 집단의 역사적 맥락을 일별하고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서, 마치 각 집단이 고정된 실체인 양 기술하는 한계를 노출해온 코리안 디아스포라 관련 기존 연구가 닿기 어려웠던 디아스포라 개인을 발굴하는 새로운 도전이기도 했다.

필자는 기존 연구자들이 처했던 연구 상황과 맥락을 잘 안다. 그 속에서 힘들게 이룩해온 코리안 디아스포라 관련 기존 연구 성과를 비난할 마음이 없다. 다만, 서로를 전혀 다른 집단 구성원이라 인식하며 스스로 타자화해 온 존재들이 비밀상적 공간에 모여 적잖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서로 묻고 답하는 가운데 서로의 삶 이야기를 완성해 간 대화 모임-의례적 실천이 기존 역사 인식, 이념과 문화적 사고방식에 균열을 가했다는 점에 주목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 사회가 한반도 내외부에 가했던 중앙과 변방의 사고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작동해왔는지 성찰하는 기회를 다양한 배경의 한민족 구성원 협력적구술생애사를 진행하며 얻을 수 있었음을 기록해 둘 뿐이다.

현재 한국 사회가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바라보는 시선은 극단적일 정도로 다양하다. 그 까닭이 중앙과 변방의 논리에만 있는 건 아니다. 한국 사회가 경험한, 또 각각의 디아스포라가 겪은 (탈)식민과 냉전 이데올로기, 자본의 논리,

7) Tessa Morris-Suzuki(2000), *Henkyo kara nagameru: Ainu ga keiken suru kindai*, edited by M. Okawa (Tokyo: Misuzu Shobo); 테사 모리스-스즈키(2006), 『변경에서 바라본 근대: 아이누와 식민주의』, 임성모 옮김 (서울: 산책림).

국민국가 만들기(nation building) 과정이 형식부터 목표까지 — 같은 집단 내부에서조차 — 매우 상이하면서도 중첩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식민과 냉전의 역사를 관통하며 동아시아와 중앙아시아, 나아가 각 대륙에서 살아온 혹은 그렇게 살다 한국으로 귀환한 한민족 구성원들은 각자 자신이 처한 상황과 맥락에 따라 스스로 입장을 결정하며 삶을 지속시키기 위한 선택과 실천을 해왔다.

이러한 경험을 축적하며 살아온 노인 세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자신의 삶 이야기를 나눈 결과, 한국 사회/국민의 경험을 절대적인 한민족 역사나 서사로 주장할 수 없음이 드러났다. 심지어 대한민국 국민이라 스스로 인식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념, 지역, 계급, 교육 수준에 따라 전혀 다른 모양의 한국이 존재했음이 나타났다. 누구나 동일한 시간 동안 자기 삶에 대해 발언할 수 있고, 이념적 가치에서 벗어난 질문과 답변으로 삶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특별한 경험이 서로의 삶을, 다시 자신의 삶을 상대화시키는 기회가 되었다. 전세계에서 살았지만 그 안에 닮은 가치관과 생각이 존재했고, 비슷해 보였지만 전혀 다른 감각과 세계관을 가졌을 수 있음을 가늠하게 된 것이다.

나오며

협력적구술생애사 모임에 참여한 이들은 대부분 자신을 평범한 삶을 살아왔다고 여기고 있었다. 하지만 참가자들이 삶 이야기 모임을 위해 마련된 의례적 시공간에 들어오는 순간 나의(혹은 사랑하는 부모·조부모 세대의) 삶 어딘가에 식민지 경험, 냉전, 체제와 이념의 다름, 남성과 여성 사이의 차별, 지역과 학력에 따른 수많은 차별과 제약이 만든 가해와 피해의 경험을 하나씩 토로하는 자신과 마주하게 되었다.

놀랍게도 가해자로 여겨온 집단과 피해자로 여긴 집단 구성원이 눈앞에서 만나게 되는 경험도 있었다. 하지만 삶 이야기를 듣고 묻고 나누는 과정에서, 적개심은 다른 방향으로 물꼬를 트기 시작했다. 나의 지난 인생을 망쳐냈다고 여겼던 가해자(혹은 관련자)를 적어도 상대방이 겪었던 삶의 특수성 속에서만큼은 이해해 볼 수 있는 마음이,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한민족다문화 삶의 역사 이야기’ 과정에서 드러난 상호 이해와 공존의 가능성 모색은 참가자 사이의 만족으로 그치지 않는다. 이 과정을 지켜본 연구팀의 일원으로, 필자는 개인 삶을 중심에 두고 타자를 이해하는 태도는 근현대 한민족 구성원이 경험했던 수많은 적대적 관계를 뛰어넘고 회복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했다고 본다. 식민지와 냉전 경험 속에서 자행된 수많은 국가폭력의 피해자를, 또 가해자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지 고민을 시작하는 단초를 주기도 했다. 나아가 이 글을 시작하며 기술했던 극우 청년들이 보인 이주민에 대한 혐오를 사회적으로 조정할 방안도 희미하게 던져줬다고 생각한다.

물론 ‘나’와 상대의 삶에 대한 이해가 곧바로 화해와 치유를 의미하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가해와 피해라는 명료한 이분법으로 말할 수 없는 중층적 차원으로, 처벌이나 혐오가 아닌 대화라는 수준으로 문제를 발전시킬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한민족다문화 삶의 역사 이야기’는 하나의 같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렇지만 닮은 속 닮음과 일관된 무엇이 찾아지는 다양한 한민족성(poly-Korean ethnicity)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냉전의 망령이 한반도의 일상에 다시 투입할 것 같은 불안감을 해체할 하나의 사회적 해법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8년의 사례는 조용히 증거하고 있다.

필자 소개 조일동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문화예술학부 부교수)



조일동은 문화인류학자다. 그동안 전지구화가 보편화된 시대에 벌어지는 대중 문화와 미디어, 그리고 사람들의 이동과 문화변동을 연구해왔고, 지금도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과 민족 문화의 발명과 변화, 갈등은 미디어 기술과 떨어뜨려 이해할 수 없다고 본다. 나아가 현대 사회가 경험하는 국민국가 국경을 넘나드는 이주와 그로 인한 사회문화적 변화와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기술의 변화와 수용 방식, 미디어가 추동하는 상상력과 삶을 추적하는 인류학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 라디오, 전자기기, 모바일 인터넷, 디지털 노동과 초국가적 이주에 이르는 연구 궤적은 이러한 사고방식이 발현된 자연스러운 결과이기도 하다.

통일평화연구원 **지식과 비평(IPUS HORIZON)**은 다양한 분과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를 평화학 관점에서 새롭게 조망하고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차원의 지속적 평화 문제에 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제공하기 위한 장이다. 인간, 사회, 국가, 환경 분야에서 평화 의제에 대한 지식을 탐구하고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갈등과 위기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평화를 구축하고 실천하기 위한 담론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